

# 전지구적 평화를 위하여

-이경재 교수의 『한국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 비교』 서평

김자영\*

베트남전쟁이 종전된 지도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 간다. 1964년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전쟁의 구실로 삼아 베트남전쟁을 시작하였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군과 미국군의 사상자 또한 상당했다. 전쟁은 무수히 많은 살상과 참상을 자아냈으며 전쟁이 끝난 오늘날에도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겨 놓았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자국만이 아닌 미국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전쟁이다. 이경재 교수는 『한국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 비교』(역락, 2022)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베트남전쟁을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의 소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이민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자의 6%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며,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중 주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베트남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보다는 협력의 관계로 나

---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학생 수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수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과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베트남전쟁의 성격에 관해 여러모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지속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그렇기에 이경재 교수의 『한국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 비교』는 오늘날 국제 관계에 있어 협력과 상생을 위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데에서도 당위성을 보여주는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베트남전쟁 소설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경재 교수의 저서는 한국 문학에 국한되었던 베트남전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은 사유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서라고 생각된다.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듯, “베트남전은 양측의 당사자만이 관여한 고전적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개입된 매우 복잡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한 국가의 작품만으로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전쟁에서의 주체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뿐만이 아닌,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까지를 포함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이 책은 크게 베트남전쟁이 한국 베트남 미국의 소설에서 각각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각국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참전 군인의 정체성의 문체와 베트남전쟁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을 통해 보여지는 젠더 인식, 끝으로 오늘날 베트남전 소설이 창작되는 주제 의식에 관해 고찰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베트남전쟁 표상과 인식의 관점, 둘째 전쟁에 참전한 한국 베트남 미국인의 정체성 관점, 셋째 각국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몸과 이들을 바라보는 남성 군인의 시각이라는 관점, 넷째, 2000년대 이후 다시 새롭게 인식되는 베트남전쟁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베트남전 소설을 고찰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죽음을 동반한다. 전쟁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각축전이기에 씻지 못할 상흔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데, 여기에는 인간 본연의 지배욕이 자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불평등하다. 지배받는 국가(민족)는 다른 국가에 의해 종속된다. 전쟁은 이런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를 규정한다. 지배를 하려는 자와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와의 충돌이 싸움과 전쟁으로 번진다. 지배를 하려는 쪽에서는 그들의 영토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소유하려 들며 저항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지켜내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의 모습도 이와 같다. 영토를 빼앗으려는 미국군과 그것을 지켜내려는 베트남군이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국군이 자리한다.

한국의 베트남전 소설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그려낸다. 또한 전쟁 참전에 대한 회의감과 정체성의 혼란이 작품에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전쟁터에 왔는지 그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데서 오는 혼란이다. 이렇듯 한국의 베트남전 소설에서는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뤄지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한 존재의 상실감이 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베트남전 소설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념적 목적의식을 따르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은 베트남의 남북통일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념적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에서는 이경재 교수도 지적하듯이,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의 책임 의식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 또한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한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참전 군인들의 정체성 혼란은 전쟁이 끝난 후 일반인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우울증과 정신 착란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전 군인의 이러한 증상은 한국 베트남 미국의 경우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작품에 나타난다. 참전 경험에 대한 후유증은 세 국가에서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경재 교수의 『한국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 비교』에서는 각 나라 소설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준다. 베트남전쟁의 부도덕함

과 공허함은 세 국가의 여러 작품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 공간에 가해지는 인간의 잔인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윤리의식의 부재로 형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 소설에서 여성은 타자화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타자화는 한국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전 소설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경재 교수는 이러한 타자화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폭력과 베트남이라는 국가 공간을 극단적으로 성애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엽제 피해 문제와 라이파이한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베트남전쟁이라는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공식 기억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가를 이번 이경재 교수의 연구서를 통해 보다 면밀히 고찰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전쟁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상대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은 전쟁이라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한 없이 잔인해지기도 하고 때론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이경재 교수의 저서를 계기로, 우리 한국 사회가 베트남전쟁을 통해 발생한 여러 면면들,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방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보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보다 진솔하게 성찰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